

Samil

Insight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 속 각자도생의 묘수 찾기

December 2024



삼일회계법인

Agenda

1. 20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	3
2.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	5
2-1. 글로벌 경제 현황	6
2-2. 글로벌 경제 전망	7
2-3. 글로벌 주요 이슈	9
2-4.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	16
3.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17
3-1. 한국 경제 현황	18
3-2. 한국 경제 전망	19
3-3. 국내 주요 이슈	21
3-4.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	25
4. 2025년 산업 지형도	26
4-1. 업종별 실적 전망	27
4-2. 주요 산업 전망	28
5. 시사점	29



1

20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

20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

트럼프, 피봇(정책전환), 불화

트럼프 2.0 시기

■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게임의 룰’ 대변화

- 미국은 ‘글로벌 리더’에서 ‘힘센 협상 상대국(Strongest Counterparty)’으로 역할 전환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과 파급 효과]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정책		Rule of Game
T rade & T ariff : 중국 견제, 관세 증대	→	자유무역 → 보호무역
R eduction of tax : 법인세 인하	→	기업 친화적 정책 강화
U ndocumented Immigrants : 불법이민 억제	→	노동시장 하부 구조 변화
M 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우선주의	→	가치기반 동맹관계 → 거래 기반 협상관계
P etroleum: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	→	친환경 내러티브 후퇴

피봇 (정책전환) 시기

■ 인플레이션 둔화 + 경기침체 우려 증가 → 통화정책 전환(긴축 → 완화) 시작

[경제정책 3대 축 현황]

통화정책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 본격화
재정정책	주요국 재정적자 지속. 재정정책의 근본 목적(경기 완충) 달성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필요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연기 → 착수’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나, 지연 가능성

☞ 단기적 경기 사이클 대응에 통화정책 전환이 유효. 반면,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경제의 중장기 건전성 및 성장동력 확보에 문제 발생할 수 있음

불화의 시기

■ 경제·사회·지정학적 불화 증대. 또한 정책-시장간 충돌도 증가

- 경제적 갈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승자독식의 기술경쟁
- 사회적 갈등: 정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세대간 갈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차
- 지정학적 갈등: 중동 분쟁 및 러-우 전쟁 지속, 각자도생 기조 속 군비경쟁
- 정책-시장간 갈등: 과잉 유동성과 과잉부채 간 충돌

■ 갈등 증가 속 돌파구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체제 개편이나, 이에 대한 합의 부족

▶ 불확실성 최고조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활로와 묘수를 찾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



2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

- 2-1. 글로벌 경제 현황
- 2-2. 글로벌 경제 전망
- 2-3. 글로벌 주요 이슈
- 2-4.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

2-1. 글로벌 경제 현황

실물 부문은 확장, 금융 부문은 긴축 완화단계

■ 실물 부문: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중국 경기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는 확장 국면에 위치

- 미국 중심의 양호한 경기 지속되며,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치 상향 수정. 다만, EU·일본 전망은 하향
- 인플레이션 둔화기 진입: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대부분 목표치(2% 내외)에 근접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 2023년 10월 vs 2024년 10월 (IMF)

(단위: %)

글로벌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2.9 → 3.2	1.5 → 2.8	1.2 → 0.8	4.2 → 4.8	1.0 → 0.3	2.2 → 2.2*

* 한국은 2024년 11월 발표된 수정치

■ 금융 부문: 2022년 중순 이후 지속된 긴축 기조 마무리되며, 통화정책 방향 전환

- 미국(2024년 9월), EU(2024년 6월) 금리인하 돌입
-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 없이 안정적 상황 유지

■ 비교적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약한 이유는 각 부문간의 양극화 심화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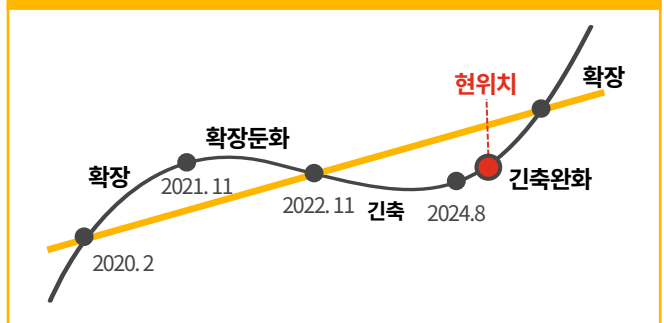
- 일부 국가에 의한 성장: 미국 경제 독주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 내 영향도 증가 vs. 중국·EU 기여도 감소
- 첨단산업 주도 성장: 고용창출 효과가 다소 낮은 하이테크 위주 성장 → 낙수효과 하락
- 기업에 집중된 부의 분배: 팬데믹 이후 GDP 내 가계 비중 축소 vs. 기업 비중 확대 → 가계소비 여력 제한
- 업종 간 차별화: 글로벌 교역 사이클의 느린 회복으로 제조업 둔화 vs. 엔데믹에 따른 서비스업 호조

실물 부문: 확장 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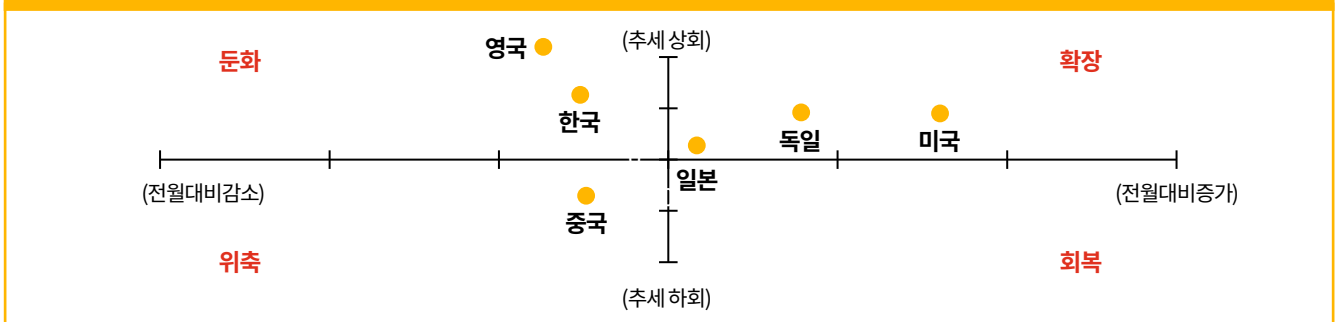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

금융 부문: 긴축 완화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 M2/GDP 수준 이용)

주요국 경기 현황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

2-2. 글로벌 경제 전망: 컨센서스 ① 성장률 및 물가

3% 초반 경제 성장 속,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 성장률 전망(IMF, 2024년 10월): 2023년 3.3% → 2024년E 3.2% → 2025년E 3.2%

- 글로벌: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 전망. 미국 주도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장기 저성장 우려 증대
- 미국: 경기둔화 국면 진입하나, 미국 중심 체제 강화로 경기변동폭 축소 (2024년 2.8% → 2025년 2.2%)
-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5%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 (2024년 4.8% → 2025년 4.5%)
- EU: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회복(2024년 0.8% → 2025년 1.2%). 스태그네이션(장기 저성장) 우려
- 한국: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 둔화되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낮은 성장 (2024년 2.2% → 2025년 2.0%)

■ 인플레이션 전망(IMF, 2024년 10월, 선진국 기준): 2023년 4.6% → 2024년 2.6% → 2025년 2.0%

-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되며 주요국 목표치(2%) 근접하고 있으나, 팬데믹 전보다 높게 유지
-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 재발 시, 인플레이션 이슈 재부각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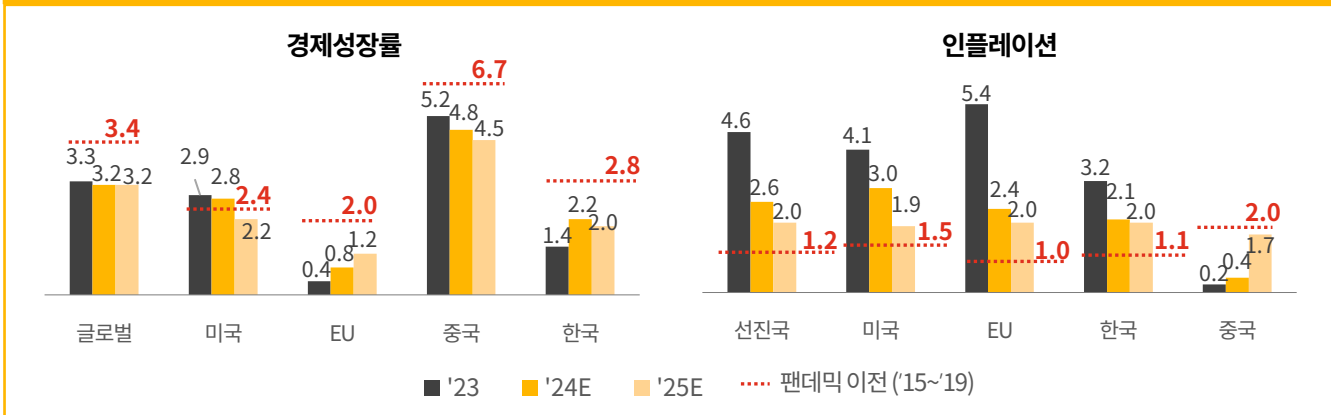


Market View

- 경제 성장: 글로벌 전반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 간 차별화
 - 미국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견조한 성장 유지하며, 소프트랜딩 전망
 - EU·중국·한국은 팬데믹 이전 대비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한 상황. 2025년에도 저성장 지속 예상
- 인플레이션: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2%)에 근접

2025년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위치

(단위: %)



Source: IMF (2024년 10월). 단, 한국은 2024년 11월 발표된 수정치

(%,YoY)		글로벌		미국		유로존		중국		한국	
		성장률	물가상승	성장률	물가상승	성장률	물가상승	성장률	물가상승	성장률	물가상승
팬데믹 이전 (2015년~2019년)		3.4	3.2	2.4	1.5	2.0	1.0	6.7	2.0	2.8	1.1
2025년 전망치	블룸버그	3.1	3.4	1.9	2.3	1.2	2.0	4.4	1.3	2.0	2.0
	IMF	3.2	4.3	2.2	1.9	1.2	2.0	4.5	1.7	2.0	2.0

Source: IMF (2024년 10월. 단, 한국은 2024년 11월 수정치), Bloomberg (2024년 11월 말)

2-2. 글로벌 경제 전망: 컨센서스 ② 금리와 환율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달러는 소폭 약세 전환

- **2025년 글로벌 금리 전망(블룸버그 컨센서스, 미 기준금리): 2024년 11월 4.75% → 2025년 4Q 3.65%**
 - 선진국 물가 안정 속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과거 사이클 고려 시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진행 예상

금리 전망 컨센서스(미국 기준)										(단위: %)	
	2024. 1Q	2024. 2Q	2024. 3Q	2024. 4Q	2025. 1Q	2025. 2Q	2025. 3Q	2025. 4Q	2023	2024E	2025E
기준금리	5.50	5.50	5.00	4.55	4.25	3.95	3.75	3.65	5.55	4.55	3.65
시장금리	4.20	4.40	3.78	4.30	4.24	4.15	4.11	4.10	3.88	4.30	4.10

* 국고채 10년물 기준

Source: Bloomberg(2024년 11월 말), 음영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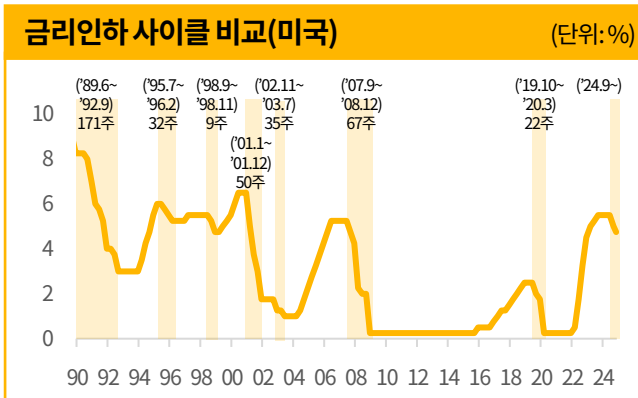
- **2025년 달러 인덱스 전망(블룸버그 컨센서스): 2024년 11월: 106.7 → 2025년 4Q: 104.4 (-2.0%)**
 -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주요국 금리차 축소되며 달러가치의 점진적 하락 전망하나, 조정폭은 미미

환율 전망 컨센서스: 미달러 인덱스									(1973년 3월 = 100)	
2024. 1Q	2024. 2Q	2024. 3Q	2024. 4Q	2025. 1Q	2025. 2Q	2025. 3Q	2025. 4Q	2023	2024E	2025E
104.5	105.9	100.8	104.8	104.3	104.0	103.9	104.4	106.0	104.8	104.4

Source: Bloomberg (2024년 11월 말), 음영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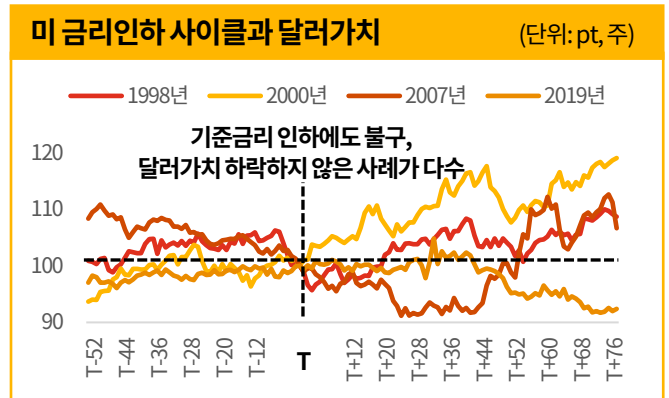
Market View

- **[금리] 2025년 상반기까지 빠른 금리인하 후, 하반기로 갈수록 속도 둔화 전망**
 -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공격적 금리인하 후, 2025년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 기조 마무리
 - 시장금리는 인하 기조 선반영, 미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정책금리 인하폭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
 - **[환율]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는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
 - 양호한 미국 경제 펀더멘탈 및 글로벌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강세 추세 지속
 - 또한, 과거 금리인하 시에도 달러 약세가 강하지 않았던 점 고려 시, 금번 조정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
- 👉 팬데믹 이전(2019년 말, 96.7) 대비 강세 지속



* 음영부분: 금리인하하기

Source: Bloomberg



* 금리인하 시작된 일자 주간 값 = 100

Source: Bloomberg

2-3. 글로벌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① 트럼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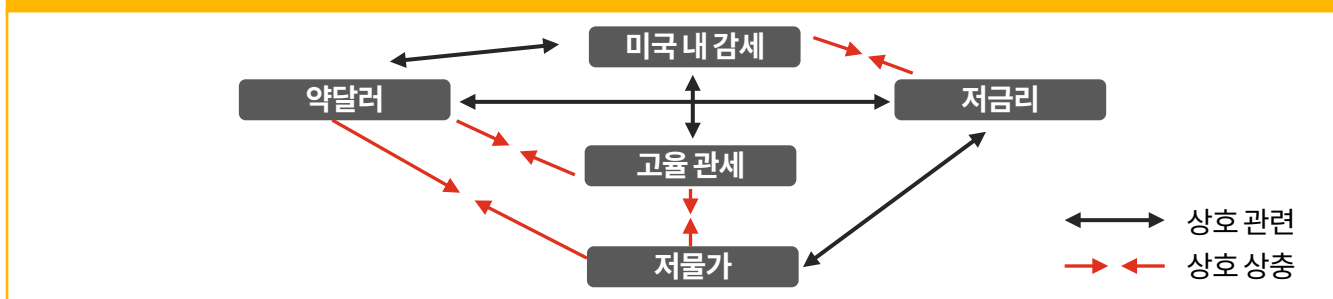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로 강화
 - 무역 및 관세 장벽 높아지고,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 재편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공약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 동맹국 역할 및 비용 압박: 고립주의 정책 기조,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 ▫ (전쟁) 러-우 전쟁 종결 유도,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 지지 ▫ (대북) 북-미 관계 개선 및 협상 의지, 다만 북한 대화 거부 시 최대 제재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양자 협상과 상호성 원칙 기반으로 미국 패권 걸림돌 되는 국가 규제 및 관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협상: 다자 협상 아닌, 국가 간 일대일 협상. 우월한 지위 활용해 미국 이익 극대화 - 상호성 원칙: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 상대국에 부과 ▫ (관세) 중국산 60%,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 10-20% 보편 관세 부과 ▫ (대중) 디커플링 기조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철저히 분리, 중국 최대 수출품 철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미국 내 제조업 법인세율 인하: 21% → 15% ▫ (통화) 연준 기준금리 결정 개입 ▫ (공급망) 온쇼어링 중심: 생산 거점 미국 회귀 ▫ (이민) 불법 이민 근절 → 노동력의 이동 제한 ▫ (세금) 부유층 세금 감면 ▫ (금리) 저금리로 기업투자 확대 ▫ (보조금) IRA 인센티브 축소(폐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석유·가스 시추/개발 확대 → 친환경 정책 후퇴

- 미국 유일주의에 초점 맞춘 4저·1고(저금리, 저물가, 감세, 약달러 + 고율 관세) 경제 정책 제시
 - 정책 간 상충 등으로 ‘3불(不) 시대’ 가능성 농후
 - (불안정) 감세-저금리, 고율 관세-저물가 등 정책 간 상충
 - (불확실) 통상조건 변화, 산업 전반 개편 등 게임의 룰 교란
 - (불안감) 자국 이기주의 팽배해질 경우 글로벌 금리, 환율 전쟁 이어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악화

트럼프 2기 정책 간 관련성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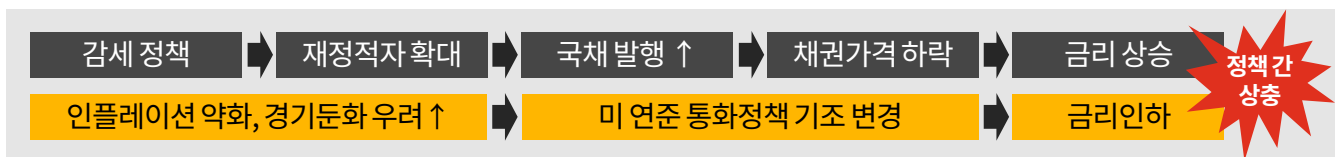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트럼프 2.0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2024. 11)’ 참조

2-3. 글로벌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②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충돌

- 주요국 재정 확대(적자)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단행 → 통화정책(금리인하) 효과 반감
- 특히 트럼프 정부 재정정책(감세)과 통화정책(저금리) 간 충돌 예상
 - 트럼프 경제 공약 실현 시 재정적자 증가 예상 → 국채금리 상승으로, 미 연준 금리인하 기조와 충돌
 - 미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96% 수준으로, OECD 평균(78.2%) 대비 이미 높은 상황 (2023년 기준)
 - 트럼프의 세금인하-재정지출 확대 반영 시, 2026-2035년 사이 총 1.4조~15조 달러(중앙값 7.5조 달러) 적자 증가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142%로 상승 → 국채 장기금리(10년) 43bp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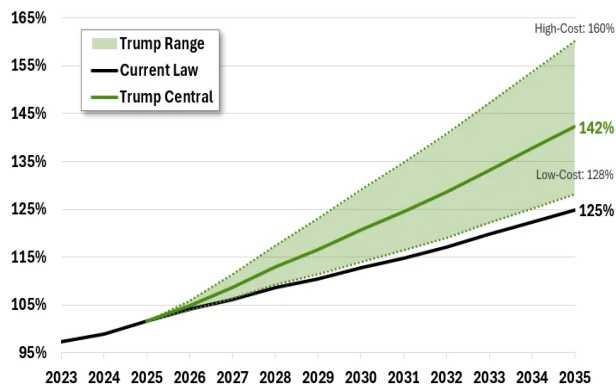
- 2025년 1월 전까지 끝내야 하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 미국은 연방 정부의 부채 총량을 법적 한도로 제한하는 부채한도(Debt Ceiling) 시행 중. 상하원 과반수 승인을 통해 한도 상향 또는 적용 중단 결정
 - 2025년 1월 1일까지 협상 미타결 시, 다음날부터 한도 제한 적용돼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 고조

2025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일정

상하원 부채 한도 협상 (2024년 12월 중) → 협상 결과(한도 상향 또는 유예) 이행 (2025년 1월 2일~다음 협상 시기)
단, 2025년 1월 1일까지 협상 완료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예고 날짜인 X-date(2025년 상반기 중)까지 협상 지연

-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수 확보하여 부채 협상 타결 전망
 - [타결 시] 공화당 지지로 트럼프 2기 정책 탄력 받을 경우 재정 적자 폭증 예상
 - ☞ 재정정책의 빠른 효과 감안 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긍정적 작용하나, 중장기로는 부정적 요인
 - [미타결 시] 디폴트 가능성은 작으나, 협상 지체로 美 신용등급 하락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예) 2011년 美 양당 부채한도 극적 합의 여파로 S&P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AAA → AA+) → 美 주가 16.8% 급락 및 10년 만기 美 국채금리 3%에서 1.7%로 하락

트럼프 2기 적자 전망 (2026~2035년) (단위: %, GDP)



Source: CBO, CRFB

트럼프 2기 재정소요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관세 증가	2,700
기타 소비 및 세금공제 축소	1,000
TCJA(감세와 일자리법) 연장 및 수정	-5,350
개인소득세 감면 및 소득공제 확대	-3,600
법인세 감면 및 소득공제 확대	-200
국방비 증대	-400
의료 관련 지원 확대	-150
불법이민 규제 및 국경 보안 강화	-350
주택관련 지출 증가 및 세금 공제	-150
순이자	-1,000
재정적자 확대 순 규모	-7,500

*2026~2035년 합계 / Source: CRFB, 한국은행

2-3. 글로벌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③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증대*

■ 팬데믹 이후 거시경제 및 경제정책 불확실성 상승

- 필립스곡선¹⁾ 불안정, 금리-자산시장 간 상관관계²⁾ 약화, 비전통 통화정책³⁾ 확대, 비은행 금융권 부상 등으로 전통적 경제정책의 효과 반감.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폭

1)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

2) 금리-자산시장(부동산, 주식 등) 간에는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존재

3)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양적완화/긴축 등)을 이용하여 경기를 조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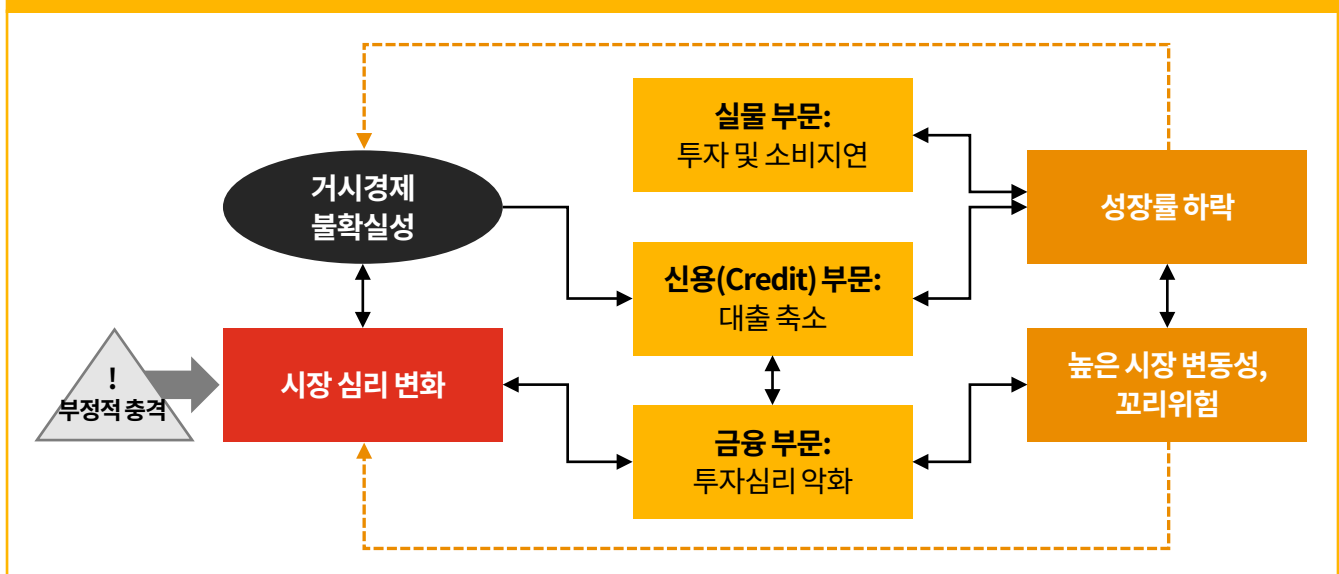
■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영향(시스템 리스크) 미치는 3가지 경로

- 시장 경로: 투자자 심리 악화 → 꼬리위험⁴⁾ 하방 확대(자산가격 하락) → 경제 전반 전파
4) 거대한 일회성 사건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발생 시 자산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 실물 경로: 기업, 소비자가 투자와 소비를 지연 → 경제 활동 둔화 → 신용위험(부도 등) 증가
- 신용 경로: 차주에 대한 대출 태도 강화 → 신용 공급 축소(대출 감소)
☞ 최근 SNS 전파로 꼬리위험 진행 속도가 빨라짐. 또한, 동일한 AI모델 사용으로 군집 행동도 증가

■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금융 취약성과 결합 시 충격 심화

- 거시경제 불확실성 1 표준편차(1 σ) 증가 시, 1분기 후 실질 경제성장률 0.5~2.0%p 감소시키며, 약 7분기에 걸쳐 영향력 행사
- 거시경제 불확실성 + 과도한 민간 및 공공부채: 경제성장률 하방 위험 크게 증가
- 국내 거시경제 불확실성 + 외국 거시경제 불확실: 수출 감소, 투자 제한되며 경기둔화 위험 증가
-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특히 꼬리위험에 더 큰 영향 끼쳐 부정적 파급효과 가속화 가능
☞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워크 신뢰성 확보가 중요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금융시장 파급 경로



Source: IMF (2024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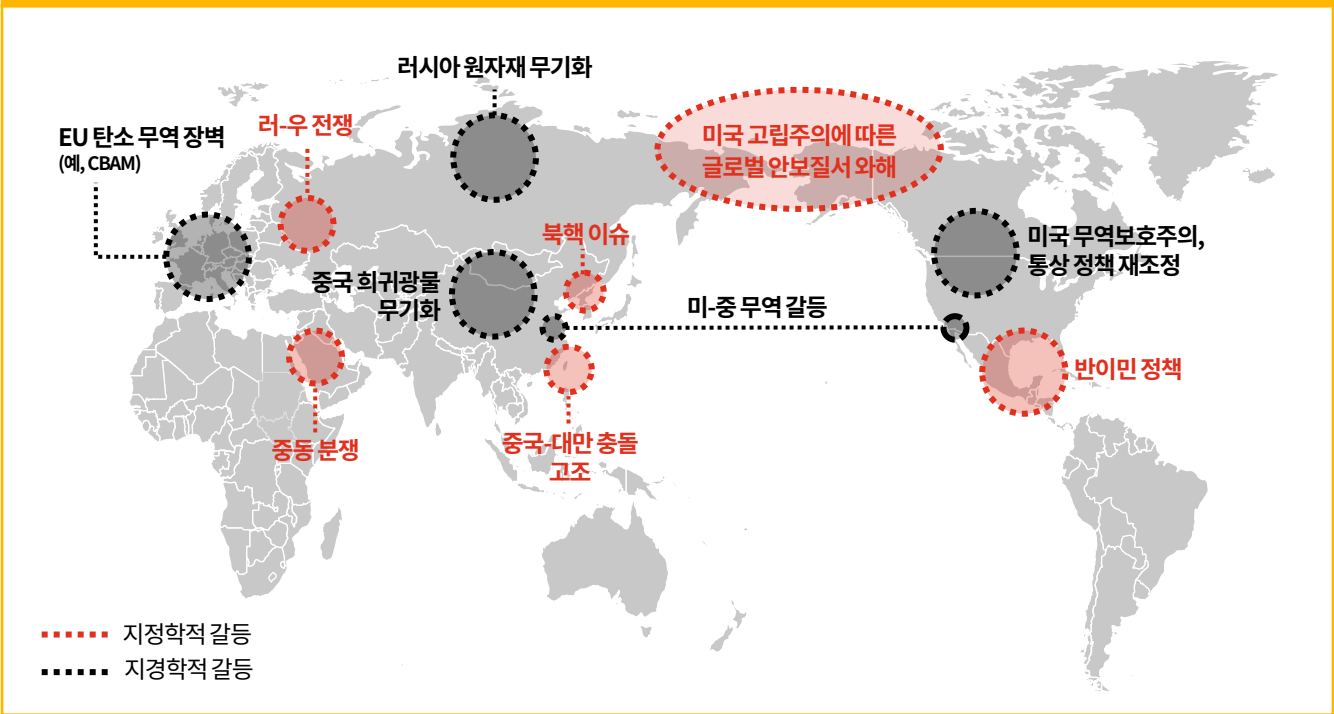
* 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4년 10월) 참조하여 작성

2-3. 글로벌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④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 러·우 전쟁 및 중동 전쟁 장기화, 트럼프 정부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증대

글로벌 주요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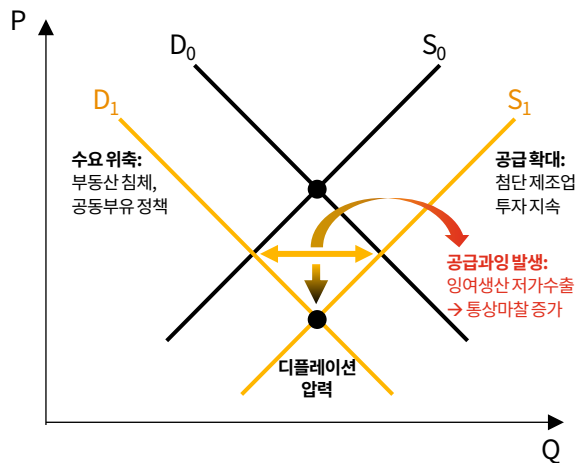
주요 이슈	발생가능한 리스크 시나리오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산 고율 관세 부과 → 중국 경제 둔화 →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타격 (대미 수출 규모: 중국 GDP의 17%)보편적 관세 부과 → 보복관세 증가 → 교역량 감소 → 글로벌 성장을 둔화중국 배제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 생산시설 이전 비용 등 기업 부담 가중 → 생산 원가 상승 → 인플레이션 우려 재발반 이민 정책 →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 → 인플레이션 발생고립주의* 정책 → 각국 국방비 증가 → 글로벌 안보 질서 와해로 불안감 증폭 <p>* 미국 이익 및 안보 관련 없는 타국 문제 간섭 최소화</p>
미·중 갈등 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 대미 수출 감소 → 제3국 우회 및 디플레 수출 → 제3국 산업 성장 타격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대만 긴장감 고조 →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 증대
러·우 전쟁 장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자재(원유 및 천연가스, 곡물) 가격 상승 및 불안정 → 산업 생산 비용 증가
중동 분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가 급등 및 운송 차질 → 원자재 가격 상승 → 물가 상승중동 무력 충돌 증가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트럼프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 중동 전쟁 확산 →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

2-3. 글로벌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⑤ 중국 리스크

-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지속과 함께 주요국들의 대응조치 강화되면서 무역마찰 확산**
 - [공급] 정부 주도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14차 5개년 계획, 2021년) 등 지속되며 생산 확대
 - [수요] 2022년부터 진행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산가격 하락하며, 소비 위축
 - ☞ 공급과잉 발생하며, 재고 소진을 위한 '저가 수출' 진행 → 주변국과의 통상마찰 증가
 -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 견제 강화 • 관세전쟁 등으로 무역 갈등 심화 위험
- **공급 중심에서 수요 확대로 경기부양책 선회 중이나,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회복이 필요**
 - 중국 가계 내 부동산 자산 비중은 65% 수준(2023년 기준)으로, 부동산 침체에 따라 소비심리 저하
 -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가계저축률 30%에 육박
 - 부동산 안정화 위한 정책 지속되나, 궁극적 회복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될 때 가능
 -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중이나, 주택 가격은 하락 지속
 - 재고 감소 및 거래량 증가 후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 소요
- **경기 부양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막대한 재정정책 필요 전망. 다만, 공동부유 정책 기조는 제약 요인**
 - 중국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급격한 경기 위축을 방어할 것
 -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56%로, 주요국(G20) 평균 121% 대비 낮은 수준(2023년 기준,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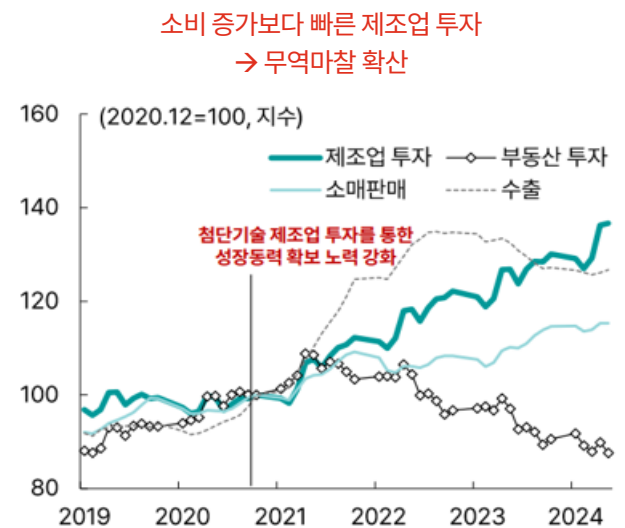
중국경제 현황: 수요와 공급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지수)



Source: CEIC, Macquari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3. 글로벌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⑥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 AI(특히 생성형AI)는 노동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골드만삭스(2023)] AI를 10년에 걸쳐 도입 시, 노동 생산성은 연 1.4%p씩 증가 전망(Baseline 기준)
 - [맥킨지(2023)] 글로벌 전체 AI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7.1조~25.6조 달러로 전망
 - [과기부(2024)] AI 성공적 도입 시 2026년 기준 국내 310조 원 경제효과 발생, 한국 GDP 성장률 1.8%p 상향
 - 자동화·효율화 통한 비용 절감 187조 원,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매출 증대 총 123조 원

- 전 산업에 변화 예상되며, 특히 창의성·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지식기반 산업에 높은 영향도

- 교육·기업 및 법조 컨설팅·이공계(STEM) 전문 기술·네트워크서비스 등은 AI의 잠재력 높음
- 반면, 건축·농업·기계 분야는 생성형AI의 대체 가능성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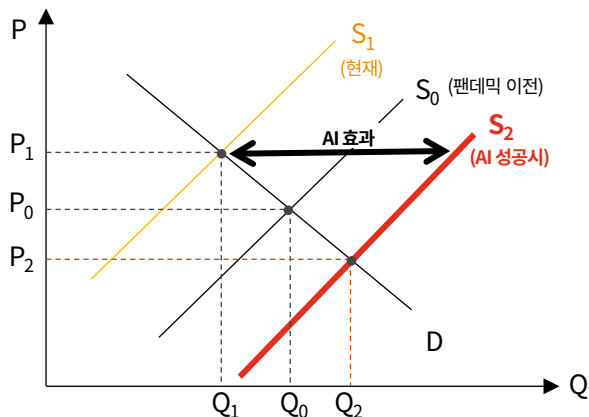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정부는 AI 분야 '혁신'과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기존 예상보다 AI 발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 다만, 속도와 효율성 뿐 아니라, AI의 태생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

*경제 분야: 인력 대체, 불평등 강화, '승자독식' 경제 불균형

사회 분야: 명확한 책임의 결여, 잘못된 정보, 디지털 격차, 감시와 갈등

보안 분야: 적대적 공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스크, 해킹 & 개인정보 유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금융시장 파급 경로



① $S_0 \rightarrow S_1$

- 구조조정 지연
- 지정학적 리스크
- 미-중 무역전쟁

➡ 생산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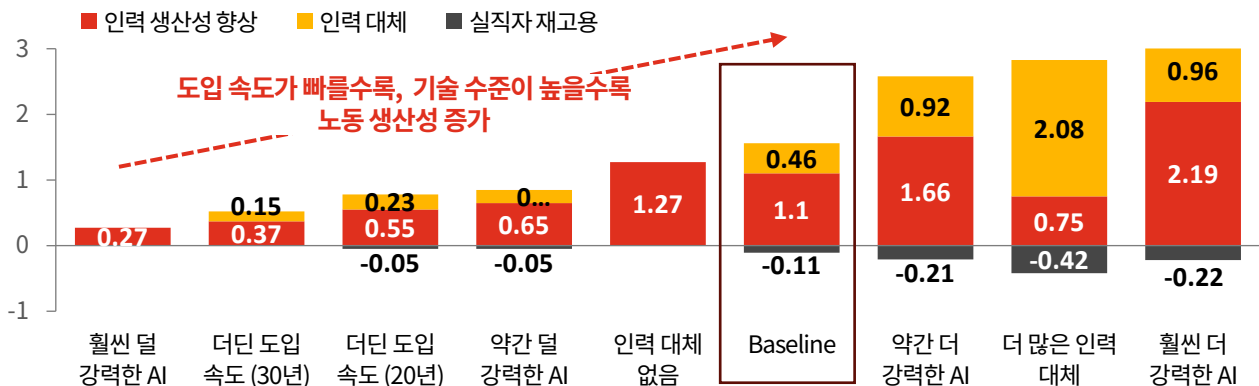
② $S_1 \rightarrow S_2$

-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물가안정 속
경제성장
(골디락스)

AI 도입이 연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도입 기간 10년, 글로벌 기업의 절반이 AI 도입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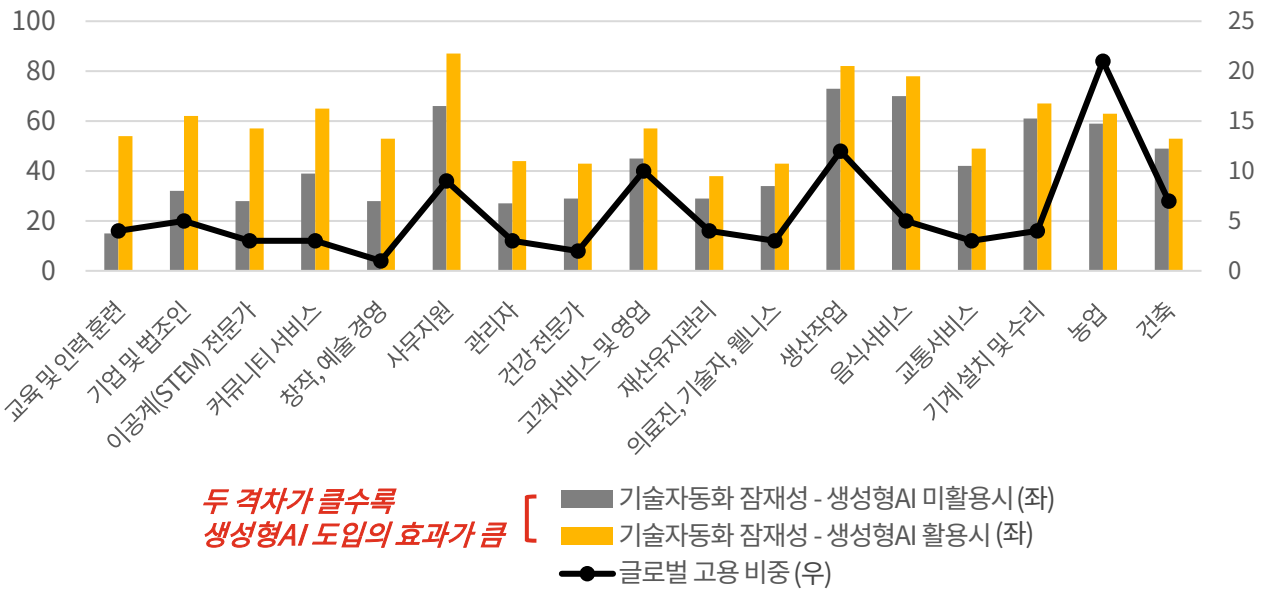
(단위: %p)



Source: Goldman Sach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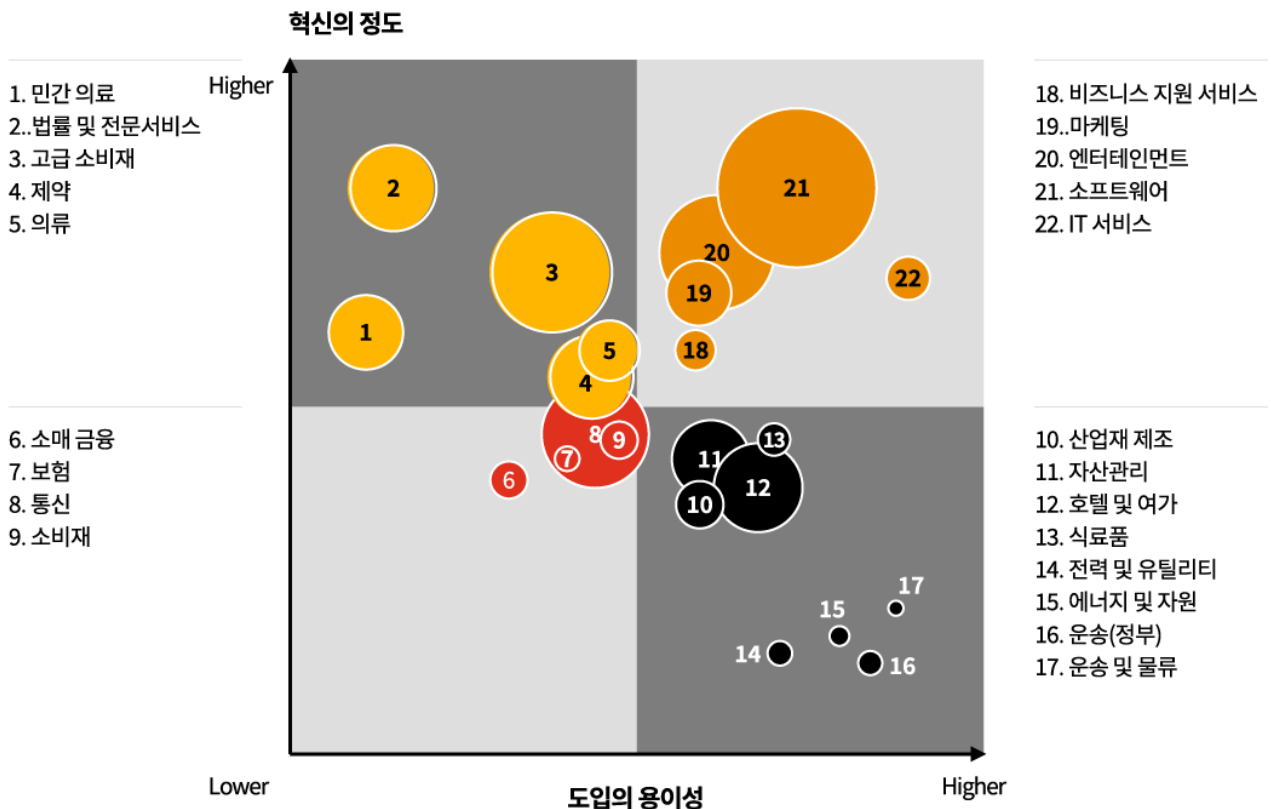
AI를 활용했을 때 산업별 생산성 차이

(단위: %)



Source: McKinsey (2023)

산업별 생성형 AI 도입 용이성 및 혁신의 정도 (원의 크기: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의 상승 정도)




Source: S&P Capital IQ data with PwC and Strategy & analysis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현주소(2024. 05)’** 와 **‘산업별 생성형 AI(GenAI) 도입 전략: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선도(2024. 10)’** 참조

2-4.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

**Market View(컨센서스)**

- 2025년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및 금리인하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 기대
 - 성장률: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 전망 (2023년 3.3% → 2024년E 3.2% → 2025년E 3.2%, IMF)
 -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되며 주요국 목표치(2%) 근접하나, 팬데믹 이전보다 높게 유지
 - 금리: 선진국 물가 안정 속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하나, 시장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
 - 환율(달러 인덱스): 달러가치 점진적 하락 전망하나, 조정폭은 제한적

**Samil View**

- 트럼프 당선과 함께,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① 트럼프 2.0 ② 재정/통화정책의 충돌 ③ 거시경제 불확실성 ④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⑤ 중국 리스크 ⑥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 ☞ 해당 요소들의 부정적 발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 컨센서스 대비 낮은 성장률·더딘 인플레이션 안정화·금리하락 지연·고환율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글로벌 경제 전망 종합					
	가능성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달러화 가치
컨센서스		+3.2%	+2.0%	-1.1%pt* (미 기준금리)	-2.0%* (달러 인덱스)
변동요인					
① 트럼프 2.0	높음	하락	상승	상승	상승
② 재정/통화정책 충돌	높음	하락	상승	상승	상승
③ 거시경제 불확실성	중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④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중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⑤ 중국 리스크	중간	하락	하락	상승	상승
⑥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중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컨센서스 대비 효과 종합		하락	상승	상승	상승

* 현재(2024년 11월 말) 수치 대비 2025년 12월 예상치의 변동폭



3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 3-1. 한국 경제 현황
- 3-2. 한국 경제 전망
- 3-3. 국내 주요 이슈
- 3-4.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요약

3-1. 한국 경제 현황

실물 부문은 짧은 확장기 진입 후 개선세 약화, 금융 부문은 확장 둔화

- **실물 부문: 경기순환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짧은 확장기 진입했으나, 최근 경기 개선세 약화되는 모습**
 - 예상보다 견조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회복
 - 글로벌 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 내수는 민간 소비가 미약한 회복에 그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 지속
 - 물가는 유가 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9월부터 관리 목표(2%) 이하 상승률 기록하며, 인플레이 우려 해소 중
 - 다만, 2024년 3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치며,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는 모습
 -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건설업 역성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경기둔화 우려 증가
- **금융 부문: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2023년 1분기 이후 확장 추이 감소**
 - 주요국 유동성 축소되는데 반해, 한국은 확대폭이 감소되었을 뿐 유동성 축소가 없었던 점이 부담 요인
- **양호한 실물 경기 및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약한 이유는**
 - 수출과 내수의 괴리: 수출 위주 기업(반도체 중심) 실적 회복 vs 내수 기반 기업 부진 지속
 - 건설 부문 부진에 따른 미약한 내수 회복 → 소비 여력 축소 및 소비심리 개선 지연
 - 자영업자(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20.1% 차지) 수익성 및 재무 상태 악화

실물 부문: 확장 후 둔화 단계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
*변곡점의 날짜는 한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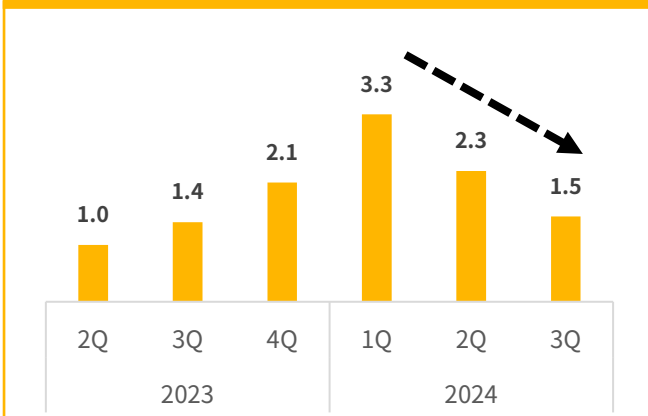
금융 부문: 완만한 정상화 시작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 M2/GDP 수준 이용)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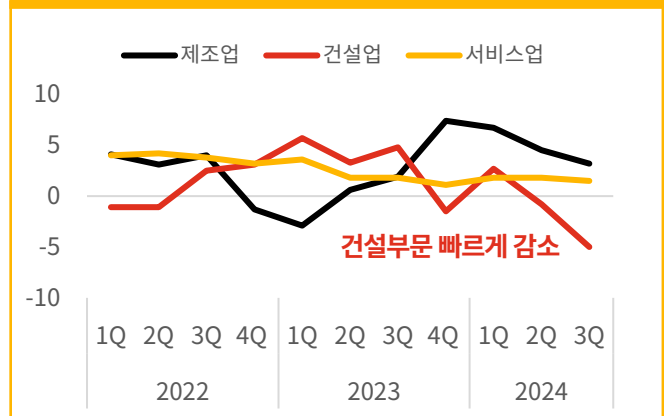
(단위: % YoY)



Source: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생산증가율

(단위: %, YoY)



Source: 한국은행

3-2. 한국 경제 전망: 컨센서스 ① 성장률 및 물가

금년 대비 낮은 2.0% 수준의 성장과 물가 안정

- **성장률 전망(컨센서스*, 2024년 11월): 2023년 1.4% → 2024년E 2.2% → 2025년E 2.0%**
 -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해보다는 낮으며, 잠재성장률 수준 전망이 대부분
 -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건설투자는 수주 부진으로 역성장 지속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플레이션 전망(컨센서스*, 2024년 11월): 2023년 3.3% → 2024년E 2.3% → 2025년 1.9%**
 -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 안정화되며, 인플레이션 목표치(2.0%)에 도달

* 4개 기관 평균: KDI (2024년 11월), IMF (2024년 11월), 블룸버그 (2024년 11월 말), 한국은행 (2024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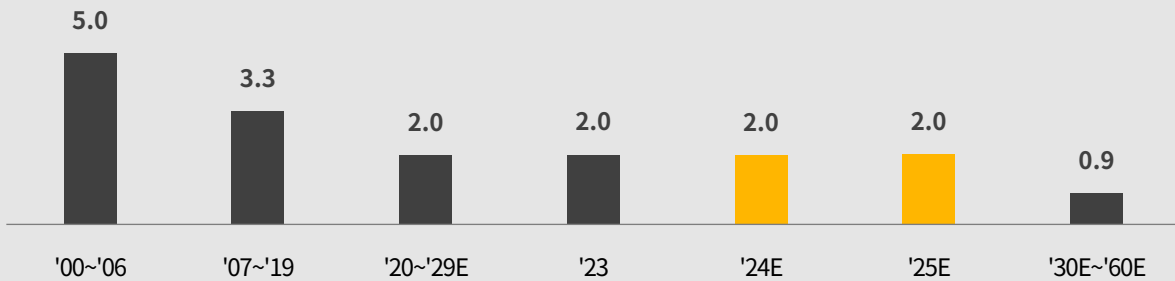


Market View

●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속,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 전망

- ▣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하락하며, 팬데믹 이전 (3.0%, 2015~2019년 평균) 대비 낮은 성장 지속
- ▣ 고령화, 교역환경 악화, PF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경제 전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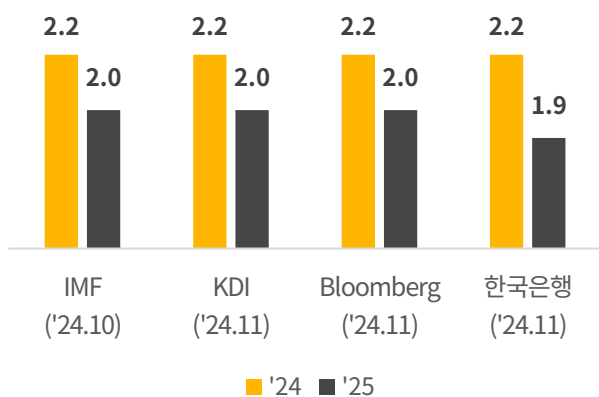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Source: OECD(2024년 5월, 단, '30~'60E 수치는 2023년 12월 전망치)

각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Source: 각 기관

부문별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단위: %)

	2023	2024E	2025E
GDP 성장률	1.4	2.2	1.9
민간소비	1.8	1.2	2.0
건설투자	1.5	-1.3	-1.3
설비투자	1.1	1.5	3.0
재화수출	2.9	6.3	1.5

Source: 한국은행 (2024년 11월)

3-2. 한국 경제 전망: 컨센서스 ② 금리와 환율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도 동참.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 2025년 국내 금리 전망(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금리): 2024년 11월 3.0% → 2025년 4Q 2.5%
 - 물가 안정 속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한국도 동참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추세적 하락 예상되지만, 속도와 폭은 기준금리보다 제한적

금리 전망 컨센서스 (단위: %)										
	2024.1Q	2024.2Q	2024.3Q	2024.4Q	2025.1Q	2025.2Q	2025.3Q	2025.4Q	2023	2024E
기준금리	3.50	3.50	3.50	3.00	3.00	2.80	2.60	2.50	3.50	3.00
시장금리*	3.40	3.26	2.99	2.99	2.88	2.81	2.74	2.63	3.18	2.99

* 국고채 10년물 기준
Source: Bloomberg(2024년 11월 말), 음영은 전망치

- 2025년 원/달러 환율 전망(블룸버그 컨센서스): 2024년 11월: 1,395원 → 2025년 4Q: 1,345원 (-3.6%)
 -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폭 축소되며,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전망

환율 전망 컨센서스(원/달러) (단위: 원)										
2024.1Q	2024.2Q	2024.3Q	2024.4Q	2025.1Q	2025.2Q	2025.3Q	2025.4Q	2023	2024E	2025E
1,347	1,376	1,315	1,385	1,375	1,370	1,380	1,345	1,291	1,385	1,345

Source: Bloomberg (2024년 11월 말), 음영은 전망치

Market View

-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진행
 - 다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금리 상승기 인상 폭이 주요국(특히 미국) 대비 적었던 만큼, 하락기 인하 폭도 크지 않을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 하락하며, 1300원 중반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이후 주요국과 금리차 확대*되며, 원화가치 큰 폭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 금리인하에 따른 금리차 축소로 원/달러 환율 다소 하락 예상

* 해당 기간 주요국 기준금리차(최대치): 미-EU 1.0%pt, 미-한 2.0%pt, 미-일 5.75%pt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

통화	2015~2019년	2020~2021년	2022~2024년 11월
달러	2%	1%	8%
유로	-6%	-2%	-2%
원	-6%	-6%	-16%
엔	-32%		

* 해당기간 초 대비 해당기간 말 가치 변화폭
Source: Bloomberg

3-3. 국내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① 사면초가의 글로벌 경제 환경

■ 불확실한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환경이 한국 경제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 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보편 관세(10-20%) 부과 가능성 증대
 - 트럼프 정부, 고관세 옹호론자 하워드 루트닉 행정부 상무장관 지명 (2024년 11월)
 - 한국 美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 재지정 → 트럼프 한국 무역 압박 작용 예상
- 한국에 10-20% 관세 부과 시 한국 수출액 최대 8% 감소 추정
 - [영향도] 실질 GDP 0.67~0.24% 감소 전망 (KIEP 2024년 10월)

미·중 갈등

- 트럼프 대중국 관세 최대 60% 부과 계획 → 중국의 관세 보복,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맞대응 가능성 고조
 - [영향도] 글로벌 GDP의 0.2~7% 감소 추정: 세계 경제에서 일본과 독일 없애는 것과 같은 영향 (IMF 2024년 10월)
 - * 과거 트럼프 1기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실질 GDP 0.3% 감소 (Itakura 2019년 8월)
- 미·중 갈등 가중 → 공급망 교란 및 세계 교역 둔화로 한국 경제 직격탄
 - [영향도]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 6% 감소 추정 (한국은행 2024년 8월)
 - * 과거 트럼프 1기 미·중 갈등 시기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 0.12%, 대중 수출 0.54% 감소 (산업경제연구원 2018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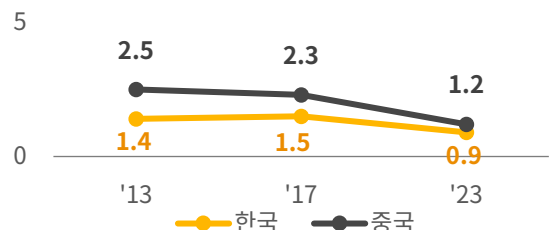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 중동 분쟁 및 러·우 전쟁 장기화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
 - [영향도] 중동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한국 중동 원유 수입량 72% 통과) 봉쇄 → 한국 전 산업 생산비용 3.02% 상승 추정 (KIET 2024년 5월)
 - [영향도] 러·우 전쟁으로 한국 전력비 연 22조 원 추가 부담 (IEEFA 2024년 3월)
- 트럼프 재집권으로 대북 관계 전면 부각
 - 트럼프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 북미 관계 회복 가능성과 최대 제재 가능성 공존
 -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로 투자 위축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좁아지는 기술 격차

- 중국과의 기술 격차 감소로 수출 감소 및 산업 경쟁력 우위 약화
 - 한중 기술 격차 1.1 → 0.3년으로 감소
 - 기술 최고국 미국 대비 한국 산업 기술 수준 상위 3위지만(2023년 기준) 중국 역전 가능성 농후: 미국(100%), 유럽(93.7%), 일본(92.9%), 한국(88%), 중국(83%)

[한중 기술 격차 추이 (미국 대비 기준) (단위: 연)]



Source: K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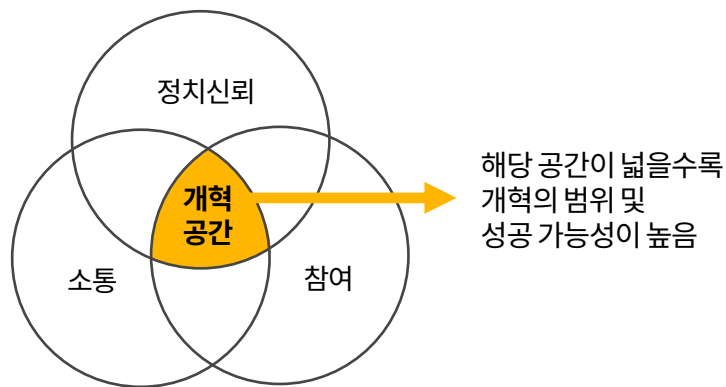
3-3. 국내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② 약한 회복 탄력성

■ 약한 디레버리징으로 통화정책 여력 축소,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연→ 경제 회복탄력성 ↓

- 부채 부담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
 - 엔데믹 이후 주요국 GDP 대비 부채비율 큰 폭 하락했으나, 한국은 미약한 수준의 디레버리징 진행
 - 차주별로는 기업 114%, 가계 94%, 정부 44% 순(2023년 기준)이며, 가계·기업의 부채 증가가 가파름
 - 특히 2022년 이후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2024년 상반기 재차 급증하며 우려 증가
 - 주택 가격·가계부채 등으로 통화정책 운영 범위가 좁아질 경우, 물가/경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어려움
- 개혁의 3요소(정치 신뢰, 소통, 참여)의 기반이 약화되어 경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점도 걸림돌
 - 성공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이 필요. 이는 충분한 정보 전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대중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가능

성공적 개혁을 위한 3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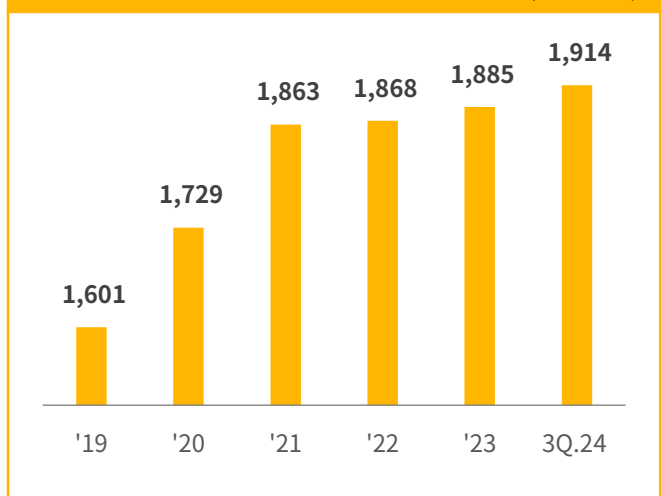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주요국 디레버리징 현황

	레버리징	디레버리징
미국	+37.3%p (’20.1Q~’20.4Q)	-38.5%p (~2024.1Q)
EU	+34.4%p (’20.1Q~’21.1Q)	-52.9%p (~2024.1Q)
일본	+39.6%p (’20.1Q~’20.4Q)	-22.9%p (~2024.1Q)
중국	+45.6%p (’20.1Q~’24.1Q)	레버리징 지속
한국	+30.7%p (2020.1Q~2023.2Q)	-3.3%p (~2024.1Q)

Source: BIS

국내 가계부채

(단위: 조 원)



Source: 한국은행

3-3. 국내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③ 달러 향방과 환율

■ ‘달러 스마일커브’ 기반 환율 분석 시, 2025년 원/달러 환율 하락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지난 4년간 글로벌 경제 불안정과 미국경제의 호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달러강세 지속
- 2025년 금리인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탄탄한 미국경제 펀더멘탈로 강달러 추이 유지 예상

[달러 스마일 커브] 미국 경제 호황 뿐 아니라 불황기에도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 불황기: 경제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치 상승
- 호황기: 경제 펀더멘탈 우위로 강달러 현상 발생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 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강달러 기조 다소 약화되겠으나, 불확실성 상승 및 미국 유일주의 정책기조로 원/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

- 달러인덱스 하락 전망치(-2.0%) 대비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치(-3.5%)가 다소 높음 (컨센서스 기준)
- ☞ 달러인덱스 수준 변동폭 적용 시, 원/달러 환율은 1,370원 대에 머무는 미미한 조정 전망

원/달러 환율 변동 요인

환율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 최대 200bp까지 확대되었던 한-미 기준금리 역전 축소 → 양국 간 금리차 축소로, 해외 자금 유출 감소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환율 상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국가 간 환율은 양국의 경제 펀더멘탈 차이로 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 증가, 기술 혁신 등으로 미국 잠재성장률이 큰 폭 상승 - 또한 2025년 경제성장률도 미국이 한국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 →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 펀더멘탈로 높은 달러가치 중장기 지속 •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 반면, 원화는 상방보다 하방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취약 통화로 취급 →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불안감 확산 시, 원/달러 환율 재상승 가능

3-3. 국내 주요 이슈: 컨센서스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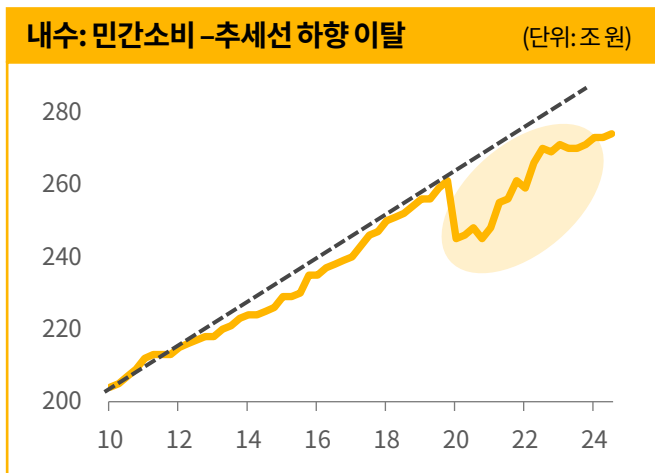
④ 내수 회복

■ 2025년 성장률 전망치의 전제: 수출의 성장 기여도 약화를 내수 회복이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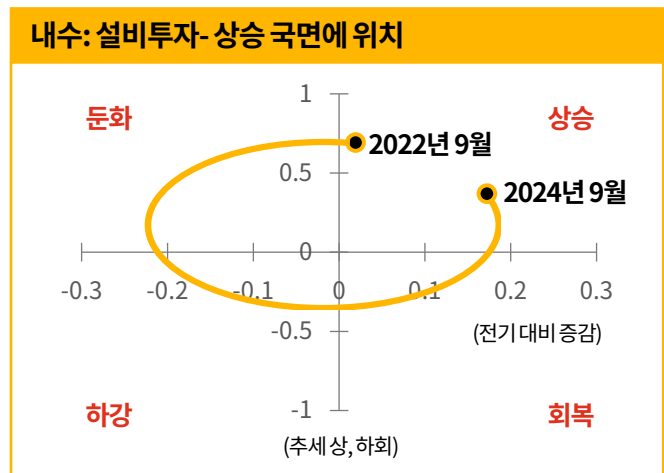
- **수출:** 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제조업경기 둔화로 수출 모멘텀 약화 → 5% 이하의 낮은 성장 전망
- **내수:** 금리인하와 수출의 낙수효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으로 내수 회복 기대

■ 그러나, 소비의 추세적 변화와 건설경기 감안 시, 내수 회복 강도가 시장 기대에 미달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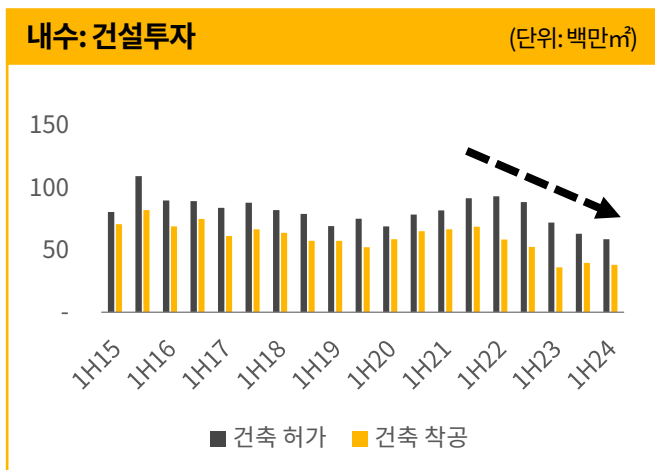
- **소비:** 팬데믹 이후 감소한 민간 소비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추세를 큰 폭으로 이탈
 - 민간소비 증가율: 팬데믹 이전(2017~2019년) 평균 +2.8% vs 엔데믹 이후(2023년부터) 평균 +1.0%
 -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고령화(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가계 소비여력 감소한 것으로 판단
- **건설투자:**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기성액 줄어 들고 있고 토목 부문도 부진하여, 건설투자 역성장 전망
 - 지연된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 ✓ 2024년 2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은 132조 원(금융권 보유분)으로, 미미한 디레버리징 속 연체율 상승
 - ✓ 정부의 PF 부실사업장 처리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불확실성 지속
- **설비투자:** 금리하락에 따른 조달 여건 개선, 수출기업 중심 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 증가 전망
 -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확보 위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정부 지원도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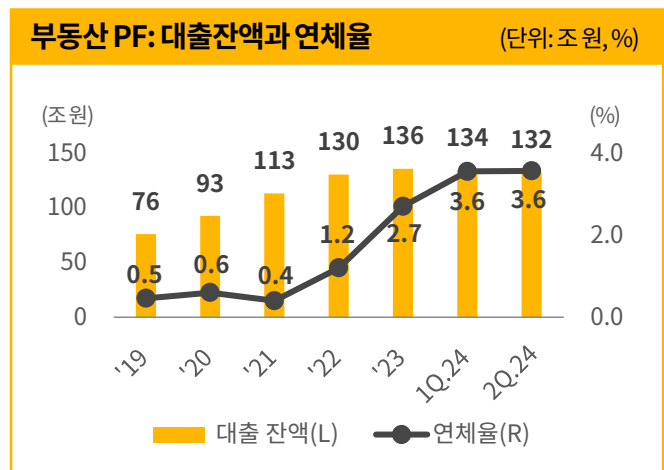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Source: 통계청 경기순환시계



Source: 통계청



Source: 금융감독원

3-4.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

Market View(컨센서스)

- 2025년 한국 경제는 금년 대비 낮은 수준의 성장 속,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및 금리 인하 전망
 - 성장률: 금년보다 낮은,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전망
(2023년 1.4% → 2024년E 2.2% → 2025년E 2.0%, IMF)
 -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되며, 물가안정목표(2.0%)에 도달
 - 금리: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 한국도 통화정책 기조 전환(금리인하)
 - 원/달러 환율: 한-미 금리 역전 폭 축소되며,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 전망

Samil View

- 트럼프 2.0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하방 위험 가중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① 글로벌 환경 ② 회복 탄력성 ③ 달러 향방과 원/달러 환율 ④ 내수 회복 여부
 - ☞ 해당 요소들의 부정적 발현 가능성 높은 가운데, 시장 예상 대비 낮은 1% 후반대의 성장률·높은 원/달러 환율 전망.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하 기조 간 충돌 예상

글로벌 경제 전망 종합					
	가능성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원/달러 환율
컨센서스		+2.0%	+2.0%	-0.5%pt* (기준금리)	-3.6%*
변동요인					
① 글로벌 환경	높음	하락	상승	상승	상승
② 약한 회복 탄력성	중간	하락	하락	하락	상승
③ 달러 향방 (높은 원/달러 환율 지속)	중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④ 내수 회복 지연	높음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컨센서스 대비 효과 종합		하락	혼조	혼조	상승

* 현재(2024년 11월 말) 수치 대비 2025년 12월 예상치의 변동폭



4

2025년 산업 지형도

4-1. 업종별 실적 전망

4-2. 주요 산업 전망

4-1. 업종별 실적 전망: 컨센서스

- 2024년은 반도체 중심으로 IT 수출주의 실적 개선이 시장을 견인. 화학·철강 등의 소재 분야는 부진
- 시장은 2025년 IT 위주 성장·소재 회복 기대하나, 대외 환경 고려 시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높음
 - 수출 기저효과 및 트럼프 2기 정부 下 통상 조건 악화 가능성 감안 시 큰 폭의 이익 개선 어려운 상황

전업종 실적 현황 및 전망*												(단위:조 원)
* 기업이익에 대한 시장(애널리스트) 전망치는 다소 높게 형성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되는 특징 고려 필요												
	매출액						영업이익					
	2022	2023	2024E	YoY	2025E	YoY	2022	2023	2024E	YoY	2025E	YoY
전 업종	2,736	2,746	2,893	5%	3,075	6%	194	152	249	64%	313	25%
에너지	229	220	220	0%	225	2%	17	9	7	-23%	12	70%
화학	122	120	118	-2%	131	11%	7	3	3	-20%	7	152%
철강	130	123	118	-4%	121	3%	8	6	4	-30%	6	31%
건설	103	117	117	1%	117	0%	5	4	5	7%	6	22%
기계	70	84	86	2%	92	8%	4	6	6	0%	7	21%
조선	45	57	70	22%	79	13%	-3	1	3	417%	6	80%
운송	90	80	90	11%	91	2%	16	6	9	51%	8	-15%
자동차	339	386	405	5%	422	4%	22	34	37	10%	37	1%
호텔,레저	5	6	7	12%	8	8%	0	1	1	23%	1	21%
소매(유통)	87	83	86	4%	90	5%	2	2	3	11%	3	24%
필수소비재	99	99	103	3%	107	4%	6	6	7	16%	8	10%
건강관리	26	28	32	15%	37	15%	3	4	4	13%	6	54%
은행	-	-	-	-	-	-	28	28	32	12%	32	2%
SW(인터넷)	55	54	58	8%	64	9%	5	5	6	34%	8	27%
IT하드웨어	49	48	52	7%	56	8%	4	2	2	22%	4	48%
반도체	367	306	388	27%	439	13%	54	-2	65	흑전	89	37%
통신서비스	57	58	59	1%	61	2%	4	4	4	-7%	5	26%
유틸리티	145	154	156	2%	162	3%	-30	-2	12	흑전	16	32%

* 2024~2025년 컨센서스 존재하는 기업 한정: 총 592개 사. 전체 상장사매출 중 71% 차지
Source: Quantiverse (2024년 11월 말)

4-2. 주요 산업 전망

■ 2025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트럼프 정부 下 통상 및 경제정책 변화

-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재부각, 군비 증강, 관세전쟁, 친환경 기조 후퇴로 산업구도 개편 전망

■ 산업별로는 헬스케어·IT(특히 AI)·방산·석유화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반면, 자동차·친환경 에너지·2차전지 산업은 피해 우려

긍정적 ↑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한국 산업에의 영향	
	우주/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원금 美 방산업체 지급 • 우주산업 우위 선점 정책 적극 추진 • 동맹국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우크라이나항 방산 수출 둔화 • 동맹국 간 국방 관련 협력 약화 가능 → 각국 군비 확충에 따른 방산 수출 기회 • 우주 분야 첨단 기술 확보 韓기업의 미국 우주 산업 진출 기회 확대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사 자발적 가격 조정 유도 •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필수약품 미국 내 생산 유도 위해 관세 조정 및 무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가인하 압박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 한국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기업 사업 확대 기회 • 통상 절차 관련 불확실성 존재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행정명령 폐지¹⁾등 빅테크기업 규제 축소로, AI 기업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 AI 기술 확보한 韓기업 반사이익 • 미국 AI 기업 제휴 통한 AI 사업 기회 확대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상호적 관세 통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 석유 생산 규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수출기업 부담 • 화석연료 규제 축소로 석유 기반 제품 활성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LNG 수출 재개에 따른 LNG 프로젝트 가속화 • 중국 견제에 따른 미 해군 전력 강화 •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해상물동량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증가 • 국내 조선사의 미 함정 MRO 사업 진출 • 글로벌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신조발주 감소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규제 철폐로, 화석연료 및 화력발전 관련 기계 장치/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 • 석유 등 전통적 발전원 부흥 관련 수요 증가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시장 관세 장벽 강화 • 무역 규제 확산 등으로 수출 제약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한국 기업 부담 증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법 변화 예상 • 첨단공정, 지식재산, 인력 수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 미국 국가 CHIPS 지원 조항 수정될 경우, 혜택 축소 가능성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FÉ²⁾ 연비규제 완화 또는 폐지 • 중국산 등 해외 생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증가로 대미 자동차 수출 악화
	2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 폐지 또는 축소 •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로 전기차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배터리 매출 감소
부정적 ↓				

1) 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 정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 조치(2023년 11월)

2) CAFÉ: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업의 당해 연도 생산 자동차 평균 연비 제한



5

시사점

시사점

-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되며 기회와 위협의 공존 시기→ 각국의 각자도생 묘수 찾기 노력 강화 전망**
 - 2025년은 그동안 누적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며,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러-우 전쟁), 중동(이스라엘 전쟁), 중국(미-중 갈등과 경기부진), 멕시코와 캐나다(관세와 국경통제), 유럽(방위비 부담과 친환경 정책), 일본(환율과 통화정책) 등 각국 상황에 따른 할로 모색 전망
- **우리나라도 내년의 시대적 흐름을 ‘전화위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필요**

글로벌 불안정, 중국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정책공간 축소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경로 지지부진

👁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대내외 전략 필요

✓ **대미전략: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환의 틈새 활용 + 신뢰기반 확대로 ‘거래적 요구’ 최소화**

- 미국의 제조업 복구 정책기조에 맞게 중국의 대안으로서 킵* 역할
 - *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조직
- 거래적 협상에 대비하여 ① 동맹 가치에 대한 실증적 증거 제시와 설득 ② 미국의 윈셋(win-set: 협상 시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 확대 노력 ③ 거래대상 우선순위 점검 및 준비

✓ **대중전략: 경제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변화*에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환을 적극 활용**

* 시장으로서의 중국(‘90~’00년대) → 밸류체인으로서의 중국(2010년대) → 경쟁국으로서의 중국(2020년대)

트럼프 1.0은 미-중 무역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트럼프 2.0은 신흥국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전망

👁 이에 따라,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이 재차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

- 우리기업의 신흥국 통한 원료/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 대상이 될 우려 있는 품목에 대한 재점검 →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 검토
-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 부여 필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환경 악화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0년에는 1%대 중반으로 하락 전망

- ✓ **구조개혁과 정책추진 공간(정치 신뢰•소통•참여)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 활력도 강화**
 - 성공적 구조개혁을 위해 충분한 정보 전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대중의 참여향상 필요
-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세제 혜택, 혁신적 신생기업 지원**

Author Contacts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njoo.oh@pwc.com

김효진 책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yojin.h.kim@pwc.com

강수정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jeong.j.kang@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12W-RP-079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